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김미선**

|| 차례 ||

- I. 머리말
- II.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의 유형
- III.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의 경향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를 파악하여, 명승지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1,200편이 넘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중 유람을 기록하고, 제목에 유람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일기 969편을 통해 명승지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명승지는 크게 자연과 인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자연 유형으로는 산(501편), 계곡(50편), 못·호수(38편), 바위(27편), 섬(19편), 바다·해변(18편), 봉우리(17편), 폭포(17편), 하천(16편), 절벽(12편), 동굴(4편), 고개(3편), 샘·온천(3편), 숲(1편)을 확인하였으며, 726편의 기행일기가 해당되었다.

인문 유형으로는 마을·지역(85편), 사찰(66편), 누정(44편), 고도(古都, 16편), 서원(12편), 성곽(6편), 정원(6편), 궁궐(2편), 능묘(2편), 재실(齎室, 2편), 교량(1편), 사당(1편)을 확인하였으며, 243편의 기행일기가 해당되었다. 인문 유형보다 자연 유형의 명승지를 유람한 경우가 많으며, 그중 산을 유람한 경우가 전체의 50%가 넘었다.

다음으로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명승지의 경향을 세 가지로 정리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757)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수 있었다. 첫째, 산, 계곡, 봉우리, 사찰 등 산 관련한 곳에 치중되어 있는 점, 둘째, 고도(古都), 화양동(華陽洞) 등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곳을 중시한 점, 셋째,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과 지역 내에서 이름난 곳이 혼재 되어 있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기행일기, 조선시대, 명승지, 유람, 인문 유형, 자연 유형

I. 머리말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산수 유람이 성행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고, 산수를 유람하고 남긴 작품을 주제별로 모아 번역한 책도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¹⁾ 그렇다면 조선시대

1)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2016-2019;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7; 국립수목원 편,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김용곤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해안, 1998;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II, 청송군, 2013-2014;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상균, 『조선시대 遊覽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20;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1998; 이종묵 편역, 『누워서 노니는 산수-조선시대 산수유기 걸작선』, 태학사, 2002;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2004; 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2016;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청문화사, 1996; 정병호·최중호·이완섭 역, 『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한국국학진흥원, 2002;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I, 민속원, 2007-2012;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최석기 외 역, 『지리산 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선비들은 어떤 곳을 주로 유람하였을까? ‘산수(山水)’와 ‘유람(遊覽)’이 자연스럽게 함께 쓰이고, 실제 산과 강으로 대표되는 자연을 유람한 경우가 많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산수만 유람한 것은 아니다.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유람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물적·인적 자원이 필요한 유람을 떠날 때, 선비들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즉 ‘명승지(名勝地)’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명성이 있기에 꼭 가고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곳을 다녀오고 문학 작품을 남겼기에 그곳의 명성은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명승지와 관련하여서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석기는 전통 명승의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하였다.²⁾ 정치영은 지리지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의 유형, 지역적 분포, 시기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고, 박정혜는 남승도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와 황해도의 명승을 살폈으며, 김지현은 한시를 통해 한양의 명승을 파악하였다.³⁾ 최근 안대회는 조선후기 자료 5가지를 통해 전국 명승의 범위와 분포를 보고, 명승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기도 하였다.⁴⁾ 이외 설악산, 경포대와 같은 곳이 명승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핀 김풍기의 논문과 같이 개별 작품을 통해 특정 명승을 살핀 연구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2008;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6, 보고서, 2009-2013 등.

- 2) 최석기, 「傳統 名勝의 人文學的 意味」, 『경남문화연구』 제29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8, pp.187-232.
- 3) 정치영, 「지리지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한중양연구원출판부, 2016; 박정혜, 「남승도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한중양연구원출판부, 2016; 김지현, 「고시문으로 본 조선의 한양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한중양연구원출판부, 2016.
- 4) 안대회, 「조선 후기 명승 자료에 나타난 경관평가」, 『동방학지』 제18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pp.285-312.

도 이루어지고 있다.⁵⁾

본 논문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를 파악하여, 이러한 명승지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행일기는 본인의 여행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제 유람했던 명승지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승지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행일기 속 명승지 파악을 통해 조선시대에 어떤 곳이 실제 명승지로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명승지의 현대적 활용 관련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행일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시대 여행을 기록한 한문일기로, 현재까지 1,279편을 확인하였다.⁶⁾ 1,200편이 넘는 기행일기 중 유람을 기록하고, 제목에 유람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 조선시대 선비들이 직접 찾았던 명승지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1,200편이 넘는 기행일기는 수적으로 적지 않지만, 미처 찾지 못한 누락된 일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일기만으로도 조선시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명승지의 일반적인 면모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강정화, 「智異山 遊山詩에 나타난 名勝의 文學的 形象化」,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pp.363-411;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名勝)의 구성과 탄생-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2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pp.333-363; 김풍기, 「명승 구성의 방식과 유형화의 길-경포대 소재 시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0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pp.117-145; 박혜영, 「15세기 名勝에 대한 題畫詩의 표현방식과 그 의미」, 『대동한문학』 제57집, 대동한문학회, 2018, pp.117-144 등.

6) 필자는 2017년부터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도 그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당초에는 여행 지역별로 기행일기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여행 목적이 다양한 기행일기를 단순히 지역으로만 나누는 것은 의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명승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의 유형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여행 목적을 살펴보면 주된 목적은 유람이다. 약 80%의 일기가 여기에 속하고, 그 외 다양한 목적으로 ‘과거 응시 및 스승 관련’, ‘관직, 유배 관련’, ‘성묘, 문헌 간행 등 선조 관련’, ‘기타 온천, 상소, 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다.⁷⁾ 조선시대 명승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유람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기록한 일기를 보되, 비교적 유람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경치가 아름답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름난 곳을 유람하는 경우가 많아, 유람지를 곧 명승지라고 볼 수 있다.⁸⁾ 또한 여행 기간 동안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여러 지점을 유람하며 가는 경우가 많아, 한 편의 기행일기로도 다양한 명승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기행일기 개별 작품을 통해 한 개인이 유람한 지점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어떠한 명승지를 유람했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유람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기록한 일기의 제목을 중심으로 명승지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일기는 필사본, 단일본의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문집 안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행일기의 경우 문집 안에 수록되어 전해

7)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여행 목적에 대해서는 김미선의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국어문학』 제71집, 국어문학회, 2019, pp.151-182)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8) 조선시대 명승지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정된 것은 아니었다. 정치영은 “경관을 소재로 한 시가 남겨져 있는 장소는 명승이라 간주할 수 있다.”(정치영, 「지리지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한중양연구원출판부, 2016, p.17)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행일기에 유람지로 기록된 곳도 명승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는 경우가 많다. 최은주는 기행일기가 다른 유형 일기에 비해 거의 90% 이상이 문집에 수록되어 전해진다고 하였고,⁹⁾ 김미선은 호남문집 소재 일기 565편을 내용상 10가지로 나누었을 때 기행일기가 322편으로 약 5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¹⁰⁾ 문집에 수록된 작품이 많다는 것은 제목에 문집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목을 저자가 지었든, 편찬자가 지었든 상관없이 일기 속 주된 유람지가 제목에 드러난 곳임에는 변함이 없다. 대체로 일기의 앞부분에 주된 유람지에 대한 언급이 있고, 제목에 드러난 곳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가야산은 영남의 남기(南紀)인데 산수의 빼어남과 사찰의 융성함으로 가장 이름나서 오래전부터 한번 유람하고 싶었다.¹¹⁾

호남의 여러 산 가운데서 서석산이 가장 웅장하므로, 특별히 무등산(無等山)이라고 부른다.¹²⁾

위는 각각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의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과 송병선(宋秉璫, 1836-1905)의 「유서석기(瑞石山記)」의 첫 부분을 예로 든 것이다. 첫 부분에 유람지를 언급하는데 모두 제목에 등장한 곳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나대[名]’, ‘웅장하다[雄]’ 등으로 유람지를 표현하여 명승지로 이름난 곳임을 알 수가 있다.

9)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p.23.

10)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p.153.

11) 최흥원, 『百弗庵集』, 「遊伽倻山錄」, “伽倻山爲嶺之南紀, 山水之勝, 寺觀之盛, 最有名稱, 久欲一遊其中.”; 국립수목원 편,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3 경상남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2014, p.63.

12) 宋秉璫, 『淵齋集』, 「瑞石山記」, “湖南諸山, 瑞石最雄, 特以無等稱.”;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p.118.

이처럼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의 제목에는 ‘○○록(錄)’, ‘○○기(記)’, ‘유(遊)○○록(錄)’, ‘유(遊)○○기(記)’ 등의 형식이 많아, ‘○○’ 부분에 여행의 주요 목적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 명승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다만 ‘남유록(南遊錄)’, ‘동유록(東遊錄)’과 같이 여행 범위가 넓고 지점이 아닌 방향을 나타낸 경우, ‘관동일록(關東日錄)’, ‘유사군기(遊四郡記)’와 같이 광역 단위나 여러 지역을 여행한 경우에는 단일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명승지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1,279편 중 969편을 통해 명승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 유형별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명승지 유형별 기행일기 수량

분류	유형	편수	분류	유형	편수
자연	산	501	인문	마을·지역	85
	계곡	50		사찰	66
	못·호수	38		누정	44
	바위	27		고도	16
	섬	19		서원	12
	바다·해변	18		성곽	6
	봉우리	17		정원	6
	폭포	17		궁궐	2
	하천	16		능묘	2
	절벽	12		제실	2
	동굴	4		교량	1
	고개	3		사당	1
	샘·온천	3	인문 소계		243
	숲	1	전체		969
자연 소계		726			

현대에는 문화재로서 명승 지정 관련하여 명승의 유형을 크게 ‘자연경

관'과 '역사문화경관'으로 분류하며, 이는 다시 세분화된다.¹³⁾ 조선시대 명승지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명승을 크게 '자연사상', '인문사상'으로 분류하고 세분화하였다.¹⁴⁾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당대에 어떠한 지역을 명승지로 보고 직접 찾아갔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영처럼 '자연'과 '인문'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간결하게 볼 수 있게 '사상'이라는 용어는 생략하였다.

세부 유형의 경우 정치영은 '자연사상' 하위를 '산(49곳), 하천(29곳), 고개(17곳), 바위(12곳), 못·호수(10곳), 섬(10곳), 여울(8곳), 계곡(5곳), 샘(4곳), 동굴(4곳), 숲(3곳), 바다·해변(2곳), 온천(1곳)'으로 구분하였고, '인문사상'은 '누정(206곳), 사찰(180곳), 역원(99곳), 궁실(43곳), 나루·포구(22곳), 사묘·사단(12곳), 마을·지역(8곳), 성곽(7곳), 교량(6곳), 능묘(6곳), 관방·진(5곳), 길(2곳), 학교(2곳)'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명승 중 자연사상은 154곳으로 전체 752곳 중 20% 정도에 불과하였다.¹⁵⁾

정치영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되, 기행일기에 드러난 명승지에 맞게 유형을 세분화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정치영이 제시한 752곳이라는 수치는 전국의 각 유형별 명승지 수량이지만, 위 표에서 제시한 수량은 해당 유형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일기의 편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승지에 대한 기행일기가 여러 편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명승지를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지를 볼 수가 있다.

정치영의 분류로 보면 조선시대 명승지는 인문이 598곳, 자연이 154곳

13) 세부 분류는 김충식의 「보존 및 활용을 고려한 명승의 분류 체계 연구」(『한국경관학회지』 제10집, 한국경관학회, 2018, p.126), 이진희·이영아·이재근의 「동북아시아 명승 유형 비교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집, 한국전통조경학회, 2012, p.3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정치영, 앞의 논문, p.39.

15) 정치영, 위의 논문, pp.39-40.

으로, 누정, 사찰, 역원과 같은 인문이 자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실제 기행일기를 통해 어떤 곳을 찾아갔는지 살펴본 결과 726편이 자연 유형에, 243편이 인문 유형에 다녀온 일을 기록하여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직접 찾아가 명승지는 인문보다 자연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인문의 경우도 개성, 경주와 같은 고도(古都) 유람을 기록한 일기도 16편을 발견하고 사당, 재실 유람을 기록한 일기도 발견하여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명승지 중 기행일기가 가장 많이 남은 유형은 산으로, 전체의 50%가 넘는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산 중 어느 산을 조선시대 선비들이 찾았는지, 기행일기 수량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표2〉 산별 기행일기 수량

산	일기 편수	지역	산	일기 편수	지역
금강산(金剛山)	73	강원	묘향산(妙香山)	8	평안
지리산(智異山)	56	경상	북한산(北漢山)	7	경기
청량산(淸涼山)	50	경상	천관산(天冠山)	7	전라
가야산(伽倻山)	29	경상	태백산(太白山)	7	강원
속리산(俗離山)	22	충청	금오산(金烏山)	6	경상
주왕산(周王山)	22	경상	한라산(漢拏山)	6	제주
무등산(無等山)	15	전라	백두산(白頭山)	5	함경
금산(錦山)	12	경상	설악산(雪嶽山)	5	강원
변산(邊山)	9	전라	월출산(月出山)	5	전라
소백산(小白山)	9	충청	천마산(天磨山)	5	경기
수락산(水洛山)	9	경기			

위는 기행일기가 5편 이상 남아 있는 산을 정리한 것이다.¹⁶⁾ 기행일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명승지로서 더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등을 명승지로서 가장 많이 찾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4편 이하의 기행일기가 남아있는 산은 많아서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산, 지리산과 같은 명산은 전국의 사람들이 찾았으며,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거주지 인근이나 부임했던 곳에 있는 곳곳의 산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3〉 4편 이하의 기행일기가 있는 산

일기 편수	산
4편	계룡산(鷄龍山), 남산(南山), 청평산(淸平山)
3편	관악산(冠岳山), 구월산(九月山), 내연산(內延山), 도봉산(道峯山), 오대산(五臺山)
2편	기룡산(騎龍山), 덕유산(德裕山), 두타산(頭陀山), 만덕산(萬德山), 비봉산(飛鳳山), 사자산(獅子山), 오도산(吾道山), 오서산(烏棲山), 운문산(雲門山), 천불산(千佛山), 칠보산(七寶山), 학가산(鶴駕山), 화악산(華嶽山)
1편	개내산(介乃山), 계양산(桂陽山), 고사산(姑射山), 관두산(館頭山), 광로산(匡廬山), 금골산(金骨山), 낙산(洛山), 내영산(內迎山), 냉산(冷山), 단석산(斷石山), 대야산(大冶山), 덕룡산(德龍山), 도덕산(道德山), 두륜산(頭崙山), 마니산(摩尼山), 망덕산(望德山), 망창산(望昌山), 몽산(蒙山), 무릉산(武陵山), 묵산(默山), 문수산(文殊山), 백암산(白巖山), 백운산(白雲山), 보평산(寶平山), 부암산(傅巖山), 불타산(佛陀山), 삼동산(三洞山), 서대산(西臺山), 서산(西山), 석양산(夕陽山), 선운산(禪雲山), 송악산(松嶽山), 수도산(修道山), 수인산(修仁山), 어등산(魚登山), 오산(鰲山), 용암산(龍巖山), 우두산(牛頭山), 운악산(雲巖山), 원적산(圓寂山), 월산(月山), 일생산(日生山), 일월산(日月山), 장산(獐山), 장안산(長安山), 재약산(載藥山), 적상산(赤裳山), 주사산(朱砂山), 집현산(集賢山), 천등산(天登山), 천생산(天生山), 청룡산(靑龍山), 청학산(靑鶴山), 치악산(雉岳山), 칠봉산(七峯山), 태화산(太華山), 팔공산(八公山), 팔봉산(八峯山), 한계산(寒溪山), 해망산(海望山), 향풍산(香楓山), 현등산(懸燈山), 화곡산(禾谷山), 화왕산(火旺山), 황악산(黃岳山), 희령산(戲靈山)

- 16)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목에 산이 드러난 것만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금강산의 경우 ‘동유록’, ‘관동일록’과 같은 제목의 글로 유람 여행이 기록된 경우도 있으나, 제목을 중심으로 명승지를 살핀 본 논문에서는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외에 산에 올라간 것은 확실하나 어느 산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일기 5편이 있다.¹⁷⁾ 이 경우 유람한 곳이 산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표1>의 산 유형 수량에는 포함시켰으나 위의 <표3>에는 넣지 않았다. 또 한번에 두 산을 유람하고 일기 제목에도 두 산이 모두 드러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산 중 먼저 이름이 나온 산 수량에 넣었다.¹⁸⁾

이렇게 기행일기를 통해 명승지를 보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떤 명승지를 많이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기행일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산 유형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의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 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 17)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덕수유산기(德水遊山記)」, 하수일(河受一, 1553-1612)의 「유청암서악기(遊靑巖西岳記)」, 신정하(申靖夏, 1681-1716)의 「유서악기(遊西嶽記)」, 나도규(羅燾圭, 1826-1885)의 「왕자대록(王子垓錄)」, 권진규(權晉奎, 1860-1910)의 「풍영유산기(風詠遊山記)」. 김안로의 일기에서는 덕수지역의 산을 유람했다고 나오고, 하수일과 신정하 일기의 「서악」은 서쪽의 산을 의미하는 듯하다. 나도규 일기에 나온 ‘왕자대’는 고려 왕자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나오는데, ‘유산록(遊山錄)’ 하위에 있고 내용상 산을 유람한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 어느 산인지는 찾지 못하였다. 권진규 일기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시를 읊으며 산을 유람한 것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한 산의 명칭이 나오지 않는다.
- 18) 조찬한(趙繼韓, 1572-1631)의 「유천마성거양산기(遊天磨聖居兩山記)」(천마산, 성거산), 이엽(李燦, 1729-1788)의 「북한도봉산유기(北漢道峯山遊記)」(북한산, 도봉산), 도우경(都禹璟, 1755-1813)의 「유가야수도산록(遊伽倻修道山錄)」(가야산, 수도산),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수락도봉산유기(水落道峯山遊記)」(수락산, 도봉산),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등양산기(登兩山記)」(몽산, 아미산),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유월출천관산기(遊月出天冠山記)」(월출산, 천관산).

Ⅲ.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의 경향

1. 산, 계곡, 봉우리 등 산 관련한 곳 치중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자연에서는 14가지 유형, 인문에서는 12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형으로는 총 26가지가 확인되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찾아간 명승지는 그중 산 관련한 곳에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

유형 중 ‘산’에 해당되는 곳에 대한 유람을 기록한 일기는 전체 969편 중 501편으로 51%에 이른다. 이외에 계곡, 봉우리, 고개 등은 산의 일부여서 산과 관련된 곳으로 묶을 수가 있다. 인문 유형에서도 사찰은 산 속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넓게 보면 사찰 또한 산 관련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표4〉 산 관련한 유형 및 기행일기 수량

구분	유형	기행일기 편수
자연	산	501
자연	계곡	50
자연	봉우리	17
자연	고개	3
인문	사찰	66
합계		637

위 표에서 보듯이 산 관련한 곳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637편으로 전체 969편의 65%에 이른다. 위는 전부를 산 관련한 곳으로 넣을 수 있는 것만 포함시킨 것으로, 이중 ‘고개[嶺]’를 제목에 드러낸 일기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고개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첨화령기 (瞻華嶺記)	서포집 (西浦集)	김만중 (金萬重)	1637-1692	1687년 가을
2	중구일등의관령소 기(重九日登義館 嶺小記)	표암유고 (豹菴遺稿)	강세황 (姜世晃)	1713-1791	1788년 9월 9일
3	유철이령기 (踰鐵嶺嶺記)	어당집 (晤堂集)	이상수 (李象秀)	1820-1882	1856년

이외에 바위, 폭포, 성곽 등의 일부도 산에 있는 경우가 있어 산과 관련한 곳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우금산에 있는 우금암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 수정산에 있는 명암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이만각(李晩愨, 1815-1874)의 「명암기(鳴巖記)」, 수락산에 있는 폭포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김유(金樸, 1653-1719)의 「수락산이폭기(水落山二瀑記)」, 북한산에 있는 동령폭포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동령관폭기(東冷觀瀑記)」, 산성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한북산성기(漢北山城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산별 기행일기 수량을 살펴볼 때 금강산과 지리산에 대한 기행일기가 가장 많았다. 봉우리, 계곡 등도 금강산, 지리산에 위치한 곳을 유람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금강산 관련한 것으로는 오재순(吳載純, 1727-1792)의 「심백탐동기(尋百塔洞記)」, 이상수(李象秀, 1820-1882)의 「장안동명경대기(長安東明鏡臺記)」·「장안동영원동기(長安東靈源洞記)」·「오심백탐기(誤尋百塔記)」·「중향성기(衆香城記)」·「신계서북만물초

기(神溪西北萬物草記)」¹⁹⁾ 등이, 지리산 관련한 것으로는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천왕봉기(遊天王峰記)」, 조구명(趙龜命, 1693-1737)의 「유심진동기(遊尋眞洞記)」, 유문룡(柳汶龍, 1753-1821)의 「유천왕봉기(遊天王峯記)」·「유쌍계기(遊雙磎記)」 등이 있다. 아래는 그중 지리산 천왕봉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유문룡 「유천왕봉기」의 일부를 예로 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삼신산(三神山)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방장산(方丈山)이다. 이 산은 호남과 영남 사이의 수 백리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 이 산의 최고봉은 위로 하늘과 맞닿아 우뚝한데 ‘천왕봉(天王峯)’이라 부른다. 나는 이 산봉우리 아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직 그 정상에 가본 적이 없다.²⁰⁾

유문룡 「유천왕봉기」의 첫 부분으로, 이후 1799년 8월 16일부터 2박 3일간의 천왕봉 유람이 기록되어 있다. 천왕봉을 가보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후 천왕봉 유람에 집중되어 있지만, 방장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산에 대한 유람이 성행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상균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신산으로 불리던 금강산·지리산·한라산이 대

19) 이상수는 1856년에 금강산 일대를 유람한 일을 일기로 기록하였으며, 여행 장소에 따라 24편의 글로 나뉘어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미선의 「조선 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한국민족문화』 제7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pp.22-23)에 설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집에 제목을 달리 하여 별도의 글로 수록된 경우 별도의 작품으로 보았으며, 작품이 24편으로 나뉘어 있어 명승지를 더 명확히 볼 수가 있었다.

20) 柳汶龍, 『槐泉集』, 「遊天王峯記」, “我東有三神山, 其一方丈也. 盤居湖嶺間數百里. 其最高峯, 上與天齊, 曰天王峯. 余生長峯下, 未嘗至其顛.”;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 보고서, 2009, p.167.

표적 명승으로 꼽혔다.”고 하였고,²¹⁾ 조선시대에 명승을 찾아다닌 유람이 유행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유람은 금강산·묘향산·소백산·지리산·청량산 등 당대 명산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였다.²²⁾ 정치영은 사대부의 산수 유람을 북한산, 금강산, 속리산, 청량산, 가야산, 지리산, 백두산에 대한 유산기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²³⁾ 그만큼 산에 대한 유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행일기를 살펴본 결과 산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산의 일부인 계곡, 봉우리 등에 대한 유람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기행일기도 볼 수가 있었다. 또 인문 유형 중 사찰 외의 유형, 자연 유형 중 바다 해변, 하천과 같은 유형과 상대적으로 산 관련한 곳이 명승지로서 비중이 어느 정도로 큰 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2.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곳 중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찾게 된다. 조선시대의 명승지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 최대의 명승지로 손꼽히는 금강산도 그 빼어난 경치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 이름을 얻게 되었을 것이며, 누정도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인문과 자연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기행일기를 통해 명승지를 확인하다보면 빼어난 경치가 조건의 전부가 아님을 볼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별도로 분류한 유형 ‘고도(古都)’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21)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8.

22) 이상균, 「조선시대 士大夫의 山水遊觀과 九曲遊覽」, 『영남학』 제27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p.371.

23)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책의 pp.14-17에 대상이 된 유산기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기행일기 중 고도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16편으로 이중 개성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개성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유송도록 (遊松都錄)	너계집 (潘谿集)	유호인 (兪好仁)	1445-1494	1477년 4월-5월
2	유송도록 (遊松都錄)	나계집 (懶齋集)	채수 (蔡壽)	1449-1515	미상(3월)
3	송경록 (松京錄)	추강집 (秋江集)	남효온 (南孝溫)	1454-1492	1485년 9월 7일-18일
4	유송도록 (遊松都錄)	도탄집 (桃灘集)	변사정 (邊士貞)	1529-1596	1591년 2월 23일-27일
5	유송도기 (遊松都記)	곡운집 (谷雲集)	김수증 (金壽增)	1624-1701	1670년 8월
6	유송경기 (游松京記)	농암집 (農巖集)	김창협 (金昌協)	1651-1708	1671년 3월 4일-10일
7	송행일기 (松行日記)	만성집 (晩醒集)	박치복 (朴致復)	1824-1894	1871년 3월

‘송도(松都)’, ‘송경(松京)’으로 지칭되는 개성에 대한 유람을 기록한 일기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아래는 그 중 1671년 3월에 개성에 다녀 온 일을 기록한 김창협(金昌協)의 「유송경기(游松京記)」 중 3월 5일 일기의 첫 부분이다. 고려를 대표하는 충신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자취를 찾아간 일을 볼 수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 즉시 송양서원(崧陽書院)으로 달려가 참배하였는데, 문을 들어서자 소나무와 대나무가 뽀뽀하게 늘어서 있어 포은(圃隱) 선생의 곳곳한 기상을 보는 듯하였다. 동쪽으로 10보쯤 간 곳에 작은 비석이 있는데, ‘고려 충신 정 아무개의 마을[高麗忠臣鄭某之閭]’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동쪽으로 수백 보 간 곳이 선죽교(善竹橋)인데, 바로 선생이 절명(絶命)하신 곳이다. 선죽교 동쪽에 비석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다리 이름이 쓰여 있고 다른 하나에는 ‘고려 시중 정 선생 성인비(高麗侍

中鄭先生成仁碑)'라고 쓰여 있었다. 종자들이 다리의 이름을 처음 듣고 내심 특별한 경관이 있을 것으로 알았다가 막상 와서 보자 그저 판판한 돌 하나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서로 바라보며 기가 막혀 웃었다. 나는 홀로 감개한 심정으로 서성이며 오래도록 떠날 수가 없었다.²⁴⁾

이 외에 신라의 수도인 경주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6편,²⁵⁾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유람을 기록한 일기가 2편,²⁶⁾ 당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1편²⁷⁾ 발견되었다. 한양은 유람할 당시의 도읍이긴 하지만 김윤덕이 유람한 1886년을 기준으로 보아도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고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곳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선인들의 자취가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다.

유람한 도시의 이름이 제목에 드러난 작품은 위와 같으며, 기타 그곳에 있는 산, 폭포 등을 유람한 것도 볼 수 있다. 예컨대 개성의 경우 천마산

24) 金昌協, 『農巖集』, 「游松京記」, “早起卽走謁崧陽書院, 入門松竹森然, 想見先生後凋氣象. 東十步許, 立短碑, 書高麗忠臣鄭某之閭. 又東數百步, 爲善竹橋, 卽先生授命地也. 橋東有二碑, 一書橋名, 一書高麗侍中鄭先生成仁碑. 從者始聞橋名, 謂有他奇, 及見之, 特扁然一石耳, 則相視啞然而笑. 余獨感慨彷徨, 久而不能去, 俄而雨驟作.”;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고전번역서’ 『농암집』, 「송경(松京) 유람기」

25) 홍성민(洪聖民, 1536-1594)의 「계림록(鷄林錄)」,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동경유록(東京遊錄)」, 임필대(任必大, 1709-1773)의 「유동도록(遊東都錄)」, 김상정(金相定, 1727-1788)의 「동경방고기(東京訪古記)」, 박이곤(朴履坤, 1730-1783)의 「유동경록(遊東京錄)」, 박중(朴琮, 1735-1793)의 「동경유록(東京遊錄)」, 김미선의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국어문학』 제71집, 국어문화회, 2019, pp.175-176)에서는 경주 유람일기로 모두 8편을 제시하였다. 이중 신국빈(申國賓, 1724-1799)의 「순오기행(旬五記行)」과 허강(許岡, 1766-1822)의 「유관록(遊觀錄)」은 제목에 유람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목에 드러난 유람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6) 권방(權訪, 1740-1808)의 「유서경기(遊西京記)」, 박기중(朴淇鍾, 1824-1898)의 「유평양기(遊平壤記)」

27) 김운덕(金雲惠, 1857-1936)의 「경성유람기(京城遊覽記)」

유람을 기록한 박은(朴闇, 1479-1504)의 「유천마산록(遊天磨山錄)」, 송악산 유람을 기록한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유송악기(遊松嶽記)」, 박연폭포 유람을 기록한 박장원(朴長遠, 1612-1671)의 「유박연기(遊朴淵記)」 등이 있다.

고도는 옛 도읍지였던 도시 전체를 유람한 것으로 명승지의 공간이 비교적 넓다. 반면에 한 사람이 머물렀던 특정 공간이 명승지로서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이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그곳을 유람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머물렀던 화양동으로, 화양동 유람을 기록한 일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7〉 화양동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유화양록 (遊華陽錄)	외암집 (畏庵集)	정운교 (鄭允喬)	1733-1821	1793년 9월
2	유화양동기 (遊華陽洞記)	전암집 (典庵集)	강정환 (姜鼎煥)	1741-1816	1765년 3월
3	유화양동기 (遊華陽洞記)	술성재유고(率 性齋遺稿)	박정일 (朴楨一)	1775-1834	1825년 3월 11일-?
4	과화양원기 (過華陽院記)	연천유고 (蓮泉遺稿)	최일휴 (崔日休)	1818-1879	미상
5	화양동유기 (華陽洞遊記)	어당집 (晤堂集)	이상수 (李象秀)	1820-1882	1856년
6	유화양제명승기 (遊華陽諸名勝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902년 3월
7	화양록 (華陽錄)	동해집 (東海集)	김훈 (金勳)	1836-1910	1876년 9월 3일-10월 3일
8	유화양록 (遊華陽錄)	창애집 (蒼崖集)	허만박 (許萬璞)	1866-1917	1898년 여름

화양동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화양리 일원으로, 경치가 빼어

난 명승지 화양구곡이 있다. 조선중기에 송시열이 약 22년간 이곳에서 제자들을 기르고 학문을 연마했고, 송시열 사후에 이곳에 만동묘(萬東廟)가 세워지고 화양서원(華陽書院)이 건립되었다.²⁸⁾

위의 표는 기행일기 중 화양동의 ‘화양’이 제목에 들어간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속리산을 유람하면서 한 지점으로 화양동을 들르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주요 유람지로 ‘화양’을 제목에 드러내고 그곳 유람이 내용의 중심인 경우가 있다. 송시열을 기리며 화양동을 방문한 것으로, 모두 18세기 이후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송시열 사후 그의 자취를 찾아 그곳에 가는 것을 일기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다.

서원의 경우도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방문하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산을 유람할 때도 인근에 있는 서원에 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원을 중심으로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도 12편을 발견하였다.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유도봉서원기(遊道峯書院記)」, 오숙(吳翺, 1592-1634)의 「유옥산서원기(遊玉山書院記)」, 조근(趙根, 1631-1680)의 「심도산서원일기(尋陶山書院日記)」, 이익(李瀼, 1681-1763)의 「알도산서원기(謁陶山書院記)」 등이 그것이다.²⁹⁾

이외에 강화도의 경우 단군이 쌓았다는 참성단이 있는 섬으로 역사적

28) 화양동에 대한 설명은 한석수의 「華陽洞의 文學-尤庵 宋時烈과 그 弟子들의 漢詩를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pp.127-128) 참조. 화양동에 계곡이 있기도 하지만 서원, 만동묘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는 유형 중 ‘마을·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최일휴의 「과화양원기」는 제목에 ‘화양원(華陽院)’이 드러나 ‘화양서원’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지만, 화양동 전체적인 지역을 유람한 것이라 함께 ‘마을·지역’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9) 제목에 ‘서원’이란 용어가 드러난 경우도 있고, 오희상(吳熙常, 1763-1833)의 「도산기행(陶山記行)」과 같이 ‘서원’이란 용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목에 ‘서원’이란 용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을 통해 서원 명칭인지 지명인지 등을 파악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의미가 있고 병자호란의 자취 등이 있어 찾게 되며,³⁰⁾ 산의 경우에도 각각 지리산, 청량산, 주왕산을 유람한 조식(曹植, 1501-1572), 이황(李滉, 1501-1570),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자취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다.³¹⁾ 섬이나 산의 풍경이 아름다워서도 찾지만, 그곳에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경우 더 의미 있는 명승지가 되는 것이다.

3. 전국적인 곳·지역적인 곳의 혼재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를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과 지역 내에서 이름난 곳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II 장의 <표2>와 <표3>에서 유람지로서 산을 살펴보았다. 이중 <표2>에 제시한 기행일기가 5편 이상 남아 있는 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가야산, 속리산, 주왕산 등은 이 산을 유람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행일기 또한 많이 남아 있다.

<표3>에 제시한 기행일기가 4편 이하인 산, 그중 1편이 남아있는 산은 66곳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는 사람들이 찾는 곳일지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30) 강화도 관련한 사항은 김미선의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도서문화』 제53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pp.45-46) 참조.

31)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연구 성과에서 언급이 있었다. 이상균은 “청량산은 금강산 지리산에 비해 산의 규모도 적고, 유람의 선호도가 높았던 산은 아니었다. 그러나 산수유기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황이 태어나고 후학을 양성한 이후 그의 제자들과 이황을 추앙하는 사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리산은 금강산과 함께 삼신산으로 불리는 명산이었고 점필재 김종직·탁영 김일손·조식에 의해 더욱 유명해져 조선후기로 갈수록 유람자들이 증가했다.”(이상균, 앞의 논문, 2013, pp.19-20)고 하였고, 박영호는 “장현광이 유람하기 이전에도 주왕산을 유람한 인물이 있었겠지만 유람록을 남긴 경우는 장현광이 처음이다. 이후 주왕산을 유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장현광의 「주왕산록」을 읽고 가거나 휴대하고 간 경우가 많았다.”(박영호, 「周王山 遊覽錄의 현황과 특징」, 『동방한문학』 제71집, 동방한문학회, 2017, p.371)고 하였다.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광주에 위치한 어등산의 경우, 같은 지역에 위치한 무등산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으며, 기행일기도 나도의(羅燾毅, 1872-1947)의 「유어등산기(遊魚登山記)」 1편만이 발견되었다. 곧 어등산은 지역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을 떠나 먼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것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더 어려웠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명승지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다른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게 되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인근의 명승지를 다녀오고 그 일을 일기로 남기기도 한다. 1502년 진도 유배 중 금골산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이주(李冑, 1468-1504)의 「금골산록(金骨山錄)」이 그러한 경우이다.

금골산은 진도 관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산은 중앙에 있는 봉우리가 가장 높는데, 4면 모두가 돌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옥부용(玉芙蓉) 같다. …… 무오년(1498) 가을에 나는 죄를 짓고 이 섬으로 귀양을 왔다. 그해 겨울에 이 산을 둘러보며 이른바 삼굴(三窟)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음에 기억해 두었다.³²⁾

위는 이주 「금골산록」의 첫 부분과 중간 부분을 예로 든 것이다. 전국적인 산을 갈 때 산의 명성을 듣고 오랜 소망 끝에 가게 된 상황이 기록된 것이 많은 반면, 위에서는 기존의 명성이나 관심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내용을 통해 유배를 온 상황에서 유배지에 위치한 금골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주는 진도에 유배 온 첫 해에 금골산을 기억

32) 李冑, 『忘軒遺稿』, 「金骨山錄」, “金骨山, 在珍島郡治西二十里. 中岳峻峨, 四面皆石, 望之若玉芙蓉 …… 歲戊午秋, 冑以罪謫來島上. 其冬, 遍觀此山, 得所謂三窟者, 心記之”; 국립수목원 편,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5 충청도, 전라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2016, pp.83-85.

해 두었다가 유배생활을 한지 4년이 된 1502년에 금골산에 다녀왔다. 그의 「금골산록」은 조선시대 기행일기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지만 이후에 금골산 기행일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금골산이 전국적인 곳이 아닌 영향이 큰 것이다.

조선시대에 섬을 유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섬 유람을 기록한 일기는 19편만을 발견하였다.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물에 가까운 강화도(4편)³³⁾,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가게 되는 국도(3편)³⁴⁾는 전국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곳은 한양을 가거나 금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찾아간다. 하지만 신안 흑산도와 같은 경우에는 뱃길이 멀고 험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김약행(金若行, 1718-1788)은 1768년 5월부터 1771년 7월까지 신안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유배생활 중에 우이도에 전염병이 돌아 대흑산도로 유람을 떠났고 이를 기록한 「유대흑기(遊大黑記)」를 남겼다.³⁵⁾ 또 유배 중에 인근의 섬 소우이도를 유람하고 「유소우이기(遊小牛耳記)」를, 인근의 해변 돈항을 유람하고 「유돈항기(遊豚項記)」를 남겼다. 김약행이 유람한 곳은 유배지 인근의 곳으로, 전국적인 곳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승지를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 중 조선후기에 발견되는 정원도 지역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정원 유형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6편으로, 아래의

33) 이도현(李道顯, 1726-1776)의 「유강도기(遊江都記)」,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의 「유강도록(遊江都錄)」, 박문호(朴文鎬, 1846-1918)의 「유심도관해기(遊沁都觀海記)」, 이승희(李承熙, 1847-1916)의 「강화일기(江華日記)」

34) 허봉(許篈, 1551-1588)의 「국도기(國島記)」,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의 「유국도록(遊國島錄)」, 홍여하(洪汝河, 1621-1678)의 「유국도기(遊國島記)」

35)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제3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139.

표와 같다.

〈표8〉 정원 유람을 기록한 기행일기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1	조원기 (曹園記)	변암집 (樊巖集)	채제공 (蔡濟恭)	1720-1799	1783년 3월 10일
2	유오원기 (遊吳園記)	변암집 (樊巖集)	채제공 (蔡濟恭)	1720-1799	1784년 윤3월
3	중유조원기 (重遊曹園記)	변암집 (樊巖集)	채제공 (蔡濟恭)	1720-1799	1784년 윤3월 13일
4	유이원기 (遊李園記)	변암집 (樊巖集)	채제공 (蔡濟恭)	1720-1799	미상
5	유일섭원기 (遊日涉園記)	존재집 (存齋集)	박윤묵 (朴允默)	1771-1849	1843년 초여름
6	유장씨원기 (遊蔣氏園記)	봉서집 (鳳棲集)	유신환 (兪莘煥)	1801-1859	1844년 6월

위의 일기들은 모두 개인이 조성한 정원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채제공이 간 ‘조원’은 조씨 성의 사람이, ‘이원’은 이씨 성의 사람이 조성한 정원이다. 박윤원이 간 ‘일섭원’도 개인 정원의 이름이며, 유신환이 간 ‘장씨원’도 장씨 성의 사람의 정원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개인의 정원을 다녀온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멀어도 오랜 바람 끝에 가게 되는 곳도 있고, 거주지나 유배·관직으로 인해 머무르게 된 곳 인근의 지역적인 곳도 있다. 전국적인 곳·지역적인 곳이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금강산과 같이 전국적인 명승지부터 고향의 어느 작은 산, 개인이 꾸민 아름다운 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승지를 볼 수가 있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를 파악하여, 명승지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1,200편이 넘는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중 유람을 기록하고, 제목에 유람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일기 969편을 통해 명승지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명승지는 크게 자연과 인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자연 유형으로는 산(501편), 계곡(50편), 못·호수(38편), 바위(27편), 섬(19편), 바다·해변(18편), 봉우리(17편), 폭포(17편), 하천(16편), 절벽(12편), 동굴(4편), 고개(3편), 샘·온천(3편), 숲(1편)을 확인하였으며, 726편의 기행일기가 해당되었다.

인문 유형으로는 마을·지역(85편), 사찰(66편), 누정(44편), 고도(16편), 서원(12편), 성곽(6편), 정원(6편), 궁궐(2편), 능묘(2편), 재실(2편), 교량(1편), 사당(1편)을 확인하였으며, 243편의 기행일기가 해당되었다. 인문 유형보다 자연 유형의 명승지를 유람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중 산을 유람한 경우가 전체의 50%가 넘었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기행일기로 본 명승지의 경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명승지는 산, 계곡, 봉우리 등 산 관련한 곳에 치중되어 있었다. 산, 계곡, 봉우리, 사찰 유형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일기는 637편으로 전체의 65%에 이르렀으며, 바위, 폭포, 성곽 등의 일부도 산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명승지 중 선인들의 자취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었다. 개성, 경주, 평양 등의 고도(古都), 송시열의 머물렀던 화양동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산의 경우에도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가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조선시대 명승지는 전국적인 곳과 지역적인 곳이 혼재하여 있었다. 그로 인해 금강산과 같이 전국적인 명승지부터 고향의 어느 작은

산, 개인이 꾸민 아름다운 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승지를 볼 수가 있었다.

명승지는 과거만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존재한다. 현대에도 문화재로서 명승을 지정하고 있고, 선조들이 다녔던 산, 강, 바위, 절벽 등은 지금도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 누정, 사찰, 서원 등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선조들이 다녔던 명승지를 현대의 사람들도 찾아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기도 한다. 기행일기를 통해 명승지 중 조선시대 선조들이 자주 찾은 곳, 조선시대 명승지의 전체적인 유형과 경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현대의 명승지 지정, 관광코스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를 파악하되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명승지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 명승지의 시기별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각 명승지 한 곳 한 곳에 집중한 연구, 기행일기 개별 작품 속 명승지를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기행일기를 활용한 명승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명승지 관련하여 기행일기가 현대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면의 한계 상 969편 기행일기의 전체 목록이 제시되지 않아 명승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행일기를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명승지의 전체적인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추후 기행일기 전체 목록을 담은 책을 출판하여 기행일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수목원 편,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3 경상남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2014.
- 국립수목원 편,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5 충청도, 전라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2016.
-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제53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pp.33-64.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제71집, 국어문학회, 2019, pp.151-182.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제7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pp.3-36.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충식, 「보존 및 활용을 고려한 명승의 분류 체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제10집, 한국경관학회, 2018, pp.123-134.
- 박영호, 「周王山 遊覽錄의 현황과 특징」, 『동방한문학』 제71집, 동방한문학회, 2017, pp.365-400.
- 안대회, 「조선 후기 명승 자료에 나타난 경관평가」, 『동방학지』 제18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pp.285-312.
- 이상균, 「조선시대 士大夫의 山水遊觀과 九曲遊覽」, 『영남학』 제27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pp.369-400.
-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진희 · 이영이 · 이재근, 「동북아시아 명승 유형 비교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집, 한국전통조경학회, 2012, pp.31-38.
-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정치영 · 박정혜 · 김지현, 『조선의 명승』, 한국한중양연구원출판부, 2016.
-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 보고서, 2009.
- 최석기, 「傳統 名勝의 人文學的 意味」, 『경남문화연구』 제29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8, pp.187-232.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제3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p.139-177.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pp.5-40.

한석수, 「華陽洞의 文學-尤庵 宋時烈과 그 弟子들의 漢詩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pp.127-15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 2020. 8. 3.

Abstract

Joseon-period Scenic Spots Seen Through Then Travelogues

Kim, Mi-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cenic spot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based on then travelogues to contribute to research related to scenic spots.

First, of more than 1,200 travelogues written in classic Chinese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969 diaries in which the destination was relatively clearly revealed in the title, the types of scenic spots were arranged. The scenic spot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nature and human types. Nature types include mountains (501), valleys (50), ponds and lakes (38), rocks (27), islands (19), seas and beaches (18), peaks (17), waterfalls (17), rivers (16), cliffs (12), caves (4), passes (3), springs and hot springs (3), and forests (1), totaling 726 travelogues.

Human types include villages and regions (85), temples (66), pavilions (44), ancient capitals (16), Confucian academies (12), castle walls (6), gardens (6), palaces (2), tombs (2), memorial structures (2), bridges (1), and shrines (1 pieces), totaling 243 travelogues. There are many cases of tours of natural type of scenic spots rather than human types, with more than 50% of the tours concerning mountains.

Next, the examination based on types of travel revealed the division of the Joseon-period scenic spots into three categories: the category of mountain-related places such as mountains, valleys, peaks, and temples, the category of ancient capitals and Hwayang-dong and other places with traces of ancestors, and the category of famous places nationwide and in regions.

Key Word : travelogue, Joseon dynasty, scenic spots, excursions, human type,
nature type

김미선

소속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 paraoho@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8월 13일 투고되어
2020년 9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9월 15일 게재 확정됨.

